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1년 6월 광공업·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생산 증가
 - 2011년 6월 광공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 비금속광물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6.4% 증가함.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 도매·소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보건·사회복지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함.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12.8%), 자동차(17.0%), 기계장비(9.1%)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영상음향통신(-18.3%), 비금속광물(-5.6%), 전기장비(-3.5%) 등의 부문에서는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8.6%), 도매·소매(4.7%),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5.6%), 보건·사회복지(4.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4.5%), 운수(2.8%), 숙박·음식점(1.5%)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전문·과학·기술(-4.9%), 부동산·임대(-4.0%) 등에서는 감소함.
 - 2011년 6월 소비와 투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5.6%, 4.3% 증가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7%)는 감소하였으나 컴퓨터·통신기기, 승용차,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17.2%)와 의복 등 준내구재(4.9%)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5.6% 증가함.
 - 설비투자는 유선통신기기, 산업용 운반기계 등 기

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함.

- 건설기성(경상)은 공중에서는 비주거용 건축 및 일반 토목공사, 발주자에서는 공공, 민간 및 민자부문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공공부문에서 공동주택, 관공서, 도로·교량 및 토지조성 등의 발주 감소로 부진하였으나 민간부문에서의 공동주택(재개발), 기계설치, 공장 및 복합화력발전소 등의 발주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전월보다 0.3p 상승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1.7%로 전월보다 0.4%p 상승함.
- 2011년 2/4분기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각각 7.1%, 3.4% 증가함으로써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4.0% 증가하였고, 소비와 투자 또한 전년동분기대비 각각 5.6%, 4.6% 증가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8					2009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6월	1/4	2/4p	6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6	8.9	5.6	11.3	3.0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6.5	10.6	7.1	6.4(0.7)
	제조업 생산	10.7	9.3	5.5	-12.1	3.0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7	16.9	10.9	7.0	6.4(1.0)
	출하	8.9	6.6	5.3	-10.1	2.4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4	13.9	11.9	7.0	5.6(1.1)
	내수	5.3	1.7	1.7	-11.0	-0.7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10.2	7.2	3.5	3.0(1.6)
	수출	14.3	14.3	10.3	-8.8	7.1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2	19.4	18.4	11.7	9.0(0.3)
	서비스업 생산	6.4	4.8	3.2	-0.4	3.4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4.0	2.7	3.4	3.6(0.9)
소비	소비재 판매	3.9	2.9	1.4	-4.2	1.0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6	3.8	5.1	5.6	5.6(1.3)
투자	설비투자	-0.9	-2.7	5.3	-13.4	-4.3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5.1	27.7	6.6	4.6	4.3(0.5)
물가		3.8	4.8	5.5	4.5	4.7	3.9	2.8	2.0	2.4	2.9	2.7	2.6	2.9	3.6	2.9	2.7	4.5	4.2	4.7(0.7)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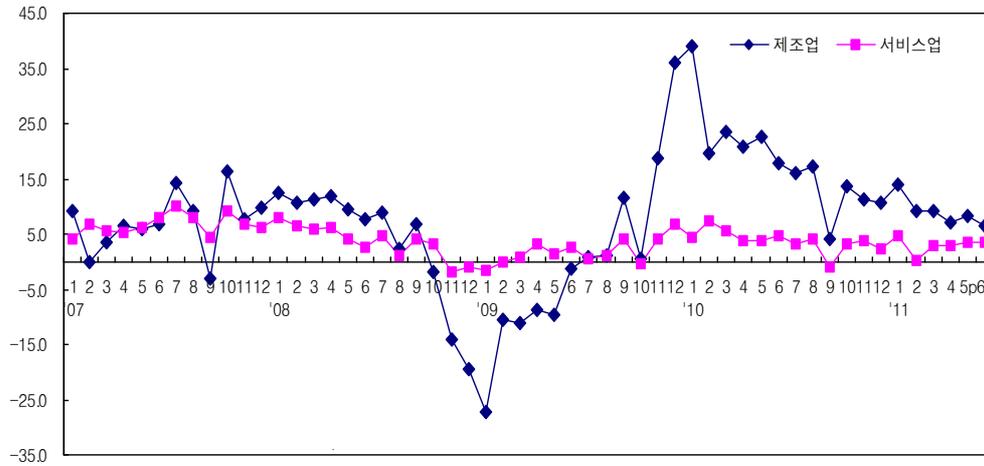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지수는 7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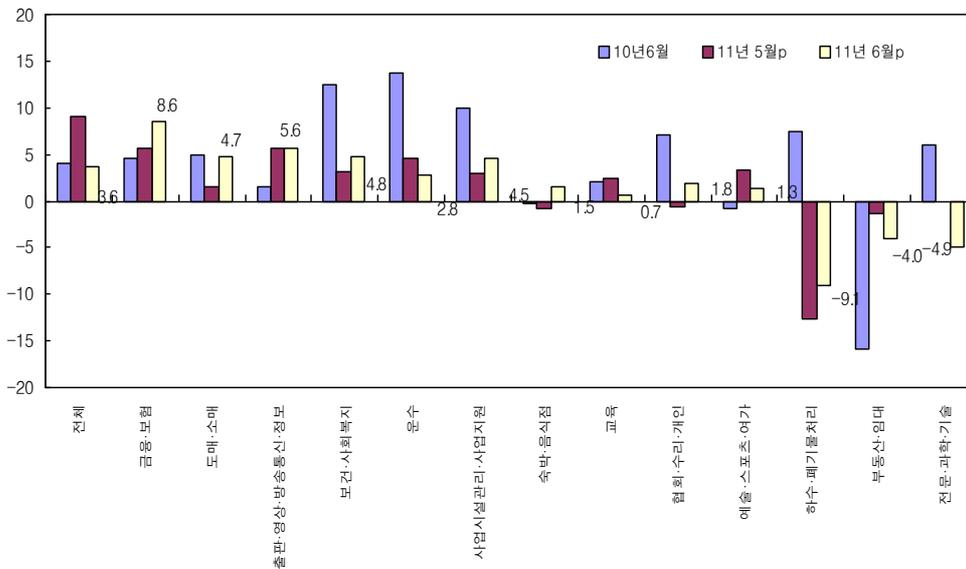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2011.7), 『2011년 6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1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4.7% 상승(생활물가지수 4.8% 상승)

- 2011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1.4(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하여 2011년 1월 4.1% 상승 이후 7개월 연속 4%대 상승을 기록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부문만 1.1% 하락하였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주거 및 수도·광열, 가구집기·가사용품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큼.
 - 2011년 7월 생활물가지수는 123.3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품부문은 전월대비 1.3%, 전년동월대비 6.3% 상승함.
 - 2011년 7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8.1%, 전년동월대비 9.0% 상승함.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1년 7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47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1천 명(1.0%)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821천 명으로 108천 명(0.7%) 증가하였고, 여성은 10,652천 명으로 133천 명(1.3%) 증가하였음.
- 2011년 7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8%)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고, 여성(50.7%)은 전년동월과 동일함(그림 3 좌측 참조).
- 2011년 7월 중 고용률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1%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9.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그림 3 우측 참조).
- 2011년 7월 중 취업자는 24,63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5천 명(1.4%)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29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6천 명(1.2%)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34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0천 명(1.6%)이 증가하였음(그림 4 참조).
- 2011년 7월 중 실업자는 83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5천 명(-10.1%)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함.

- 남성 실업자는 53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8천 명(-11.3%)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0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 명(-8.0%)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6%로 전년동월대비 0.5%p 감소하였고, 여성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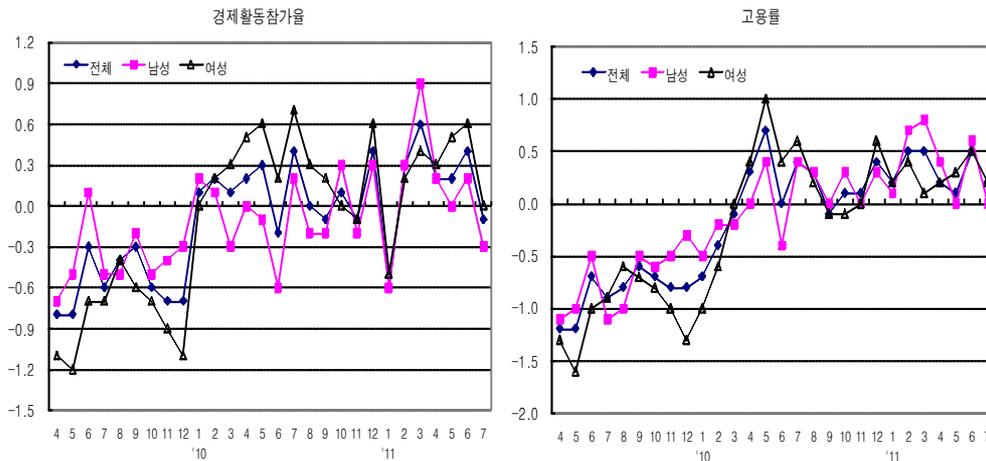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7월
경제활동인구	24,166 (1.5)	25,038 (1.5)	24,993 (1.4)	25,232 (1.9)	24,796 (1.4)	24,488 (1.3)	25,437 (1.6)	25,592 (1.7)	25,473 (1.0)	
참가율	59.8	61.8	61.5	62.1	60.8	59.9	62.0	62.4	62.0	
취업자	23,037 (0.6)	24,170 (1.8)	24,120 (1.6)	24,301 (2.0)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752 (1.9)	24,636 (1.4)	
고용률	57.0	59.6	59.3	59.8	58.9	57.4	59.9	60.3	60.0	
실업자	1,130	868	873	931	808	1,028	865	839	837	
실업률	4.7	3.5	3.5	3.7	3.3	3.9	3.4	3.3	3.3	
비경제활동인구	16,254 (1.0)	15,493 (1.0)	15,656 (0.8)	15,383 (0.1)	15,962 (0.3)	16,392 (0.8)	15,559 (0.4)	15,441 (0.2)	15,614 (1.5)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1. 8), 『2011년 7월 고용동향』.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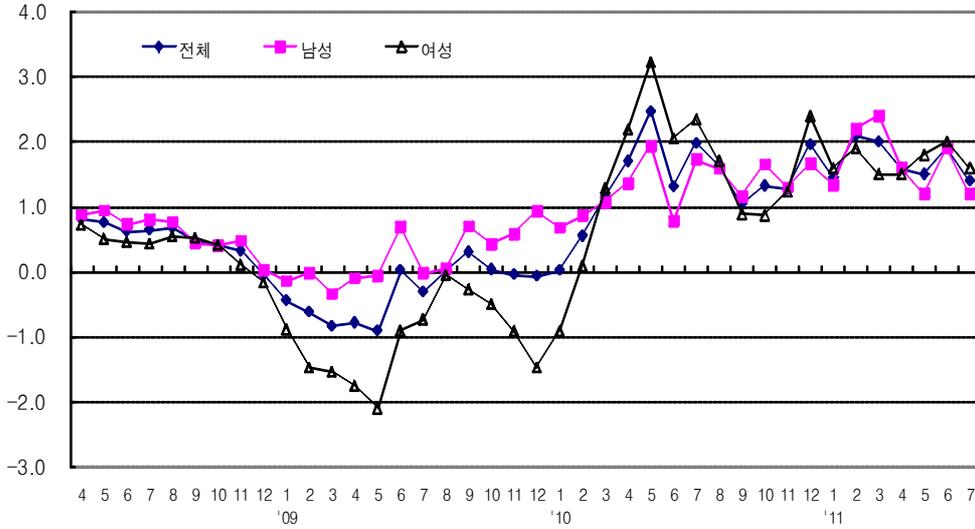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1년 7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61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1천 명(1.5%)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27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2천 명(2.4%)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34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9천 명(1.1%)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3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천 명 증가하였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56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5천 명(16.0%)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104천 명으로 61천 명(-1.5%) 감소하였음.

◆ 제조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 2011년 7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88천 명, 2.3%), 전기·운수·통신·금융업(193천 명, 6.9%), 제조업(40천 명, 1.0%) 등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55천 명, -3.1%), 농림어업(-55천 명, -3.1%) 등에서는 감소함.
 - 2010년 이래 제조업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전 산업	23,037 (0.6)	24,170 (1.8)	24,120 (1.6)	24,301 (2.0)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752 (1.9)	24,636 (1.4)
농림어업	1,235 (-11.7)	1,733 (-4.6)	1,754 (-2.5)	1,754 (-2.3)	1,544 (-2.2)	1,207 (-2.3)	1,736 (0.2)	1,790 (-1.6)	1,699 (-3.1)
제조업	3,911 (1.6)	4,015 (4.5)	4,053 (6.9)	4,040 (6.2)	4,131 (7.0)	4,139 (5.8)	4,127 (2.8)	4,135 (2.9)	4,079 (1.0)
건설업	1,644 (-3.6)	1,816 (2.5)	1,791 (5.4)	1,810 (7.0)	1,761 (3.3)	1,641 (-0.2)	1,774 (-2.3)	1,802 (-2.3)	1,754 (-3.1)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5,532 (-1.0)	5,461 (-1.3)	5,443 (-1.2)	5,552 (-0.4)	5,442 (-1.3)	5,471 (-1.1)	5,457 (-0.1)	5,472 (0.9)	5,581 (0.5)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7,859 (3.2)	8,294 (3.9)	8,244 (0.9)	8,330 (1.6)	8,234 (1.0)	8,097 (3.0)	8,529 (2.8)	8,580 (2.9)	8,518 (2.3)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34 (4.1)	2,831 (2.4)	2,816 (2.3)	2,797 (1.8)	2,855 (1.9)	2,880 (1.6)	2,933 (3.6)	2,959 (4.9)	2,991 (6.9)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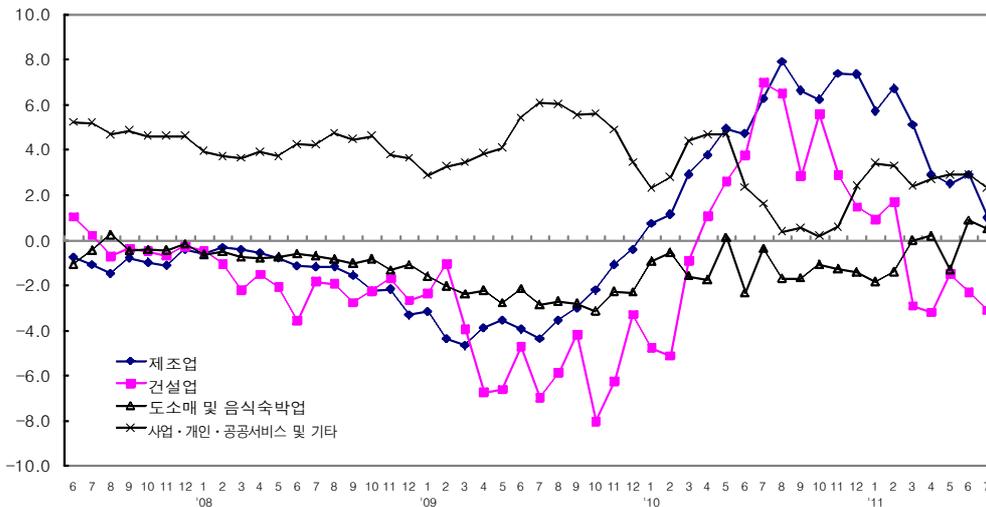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1.8), 『2011년 7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직 증가 지속

- 2011년 7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96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4천 명(-1.5%)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66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9천 명(2.5%)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718천 명으로 611천 명(6.0%)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137천 명으로 78천 명(-1.5%) 감소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811천 명으로 94천 명(-4.9%)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6 좌측 참조).
 - 고용주는 소폭 증가, 자영업자는 감소 지속. 2011년 들어 무급가족종사자는 계속 증가하다가 6월 이후 두달 연속 감소하였음(그림 6 우측 참조).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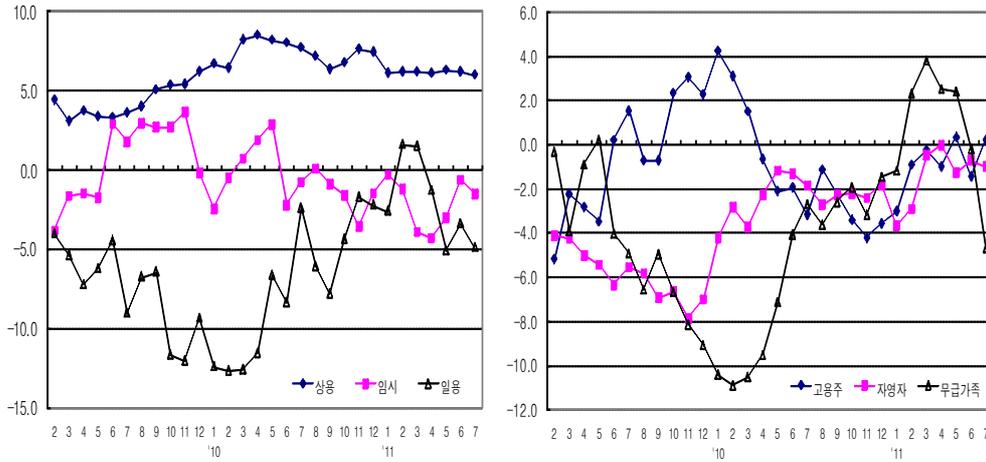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7월	
전 체	23,037 (0.6)	24,170 (1.8)	24,120 (1.6)	24,301 (2.0)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752 (1.9)	24,636 (1.4)	
비임금근로자	6,638 (-3.5)	7,023 (-2.6)	6,994 (-2.4)	7,073 (-2.3)	6,778 (-2.5)	6,542 (-1.5)	7,004 (-0.3)	7,032 (-0.8)	6,969 (-1.5)	
자영업주	5,514 (-1.9)	5,696 (-1.6)	5,646 (-2.3)	5,706 (-2.2)	5,514 (-2.6)	5,399 (-2.1)	5,657 (-0.7)	5,668 (-0.9)	5,667 (-0.7)	
무급가족종사자	1,124 (-10.6)	1,327 (-6.9)	1,348 (-3.0)	1,367 (-2.7)	1,264 (-2.2)	1,143 (1.7)	1,348 (1.5)	1,364 (-0.2)	1,302 (-4.7)	
임금근로자	16,398 (2.3)	17,148 (3.8)	17,126 (3.3)	17,228 (3.9)	17,211 (3.2)	16,917 (3.2)	17,568 (2.5)	17,720 (3.1)	17,667 (2.5)	
상용근로자	9,808 (7.1)	10,060 (8.2)	10,158 (7.1)	10,107 (7.7)	10,320 (7.3)	10,413 (6.2)	10,681 (6.2)	10,716 (6.2)	10,718 (6.0)	
임시근로자	4,892 (-0.7)	5,179 (0.8)	5,148 (-0.5)	5,215 (-0.8)	5,052 (-2.2)	4,804 (-1.8)	5,041 (-2.7)	5,132 (-0.6)	5,137 (-1.5)	
일용근로자	1,699 (-12.5)	1,909 (-8.8)	1,820 (-5.4)	1,905 (-2.4)	1,838 (-2.8)	1,701 (0.1)	1,846 (-3.3)	1,872 (-3.4)	1,811 (-4.9)	
36시간 미만	4,851 (56.9)	3,197 (6.7)	3,329 (-1.8)	3,421 (-5.6)	3,090 (4.4)	3,246 (-33.1)	3,210 (0.4)	3,179 (2.7)	3,562 (4.1)	
36시간 이상	17,671 (-8.7)	20,705 (1.1)	20,362 (2.4)	20,512 (3.3)	20,620 (1.1)	19,739 (11.7)	21,067 (1.7)	21,265 (1.8)	20,602 (0.4)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1.8), 『2011년 7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2011년 7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56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1천 명(4.1%)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602천 명으로 90천 명(0.4%) 증가하였음.
 - 18시간 미만 취업자 1,162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3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 명 (-6.9%) 감소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모든 학력에서 실업률 감소

- 2011년 7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15~29세(7.6%, -0.9%p), 30대(3.1%, -0.3%p), 40대(2.0%, -0.4%p), 50대(2.0%, -0.4%p)에서 감소함.
 - 60세 이상(2.5%, 0.3%p)은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2.3%, -0.5%p), 고졸(4.1%, -0.2%p), 대졸 이상(2.9%, -0.6%p) 모든 학력에서 감소함.
- 2011년 7월 중 전체 실업자 837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6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73천 명으로 102천 명 감소하였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8월			6월	7월	
전 체	1,130(4.7)	868(3.5)	873(3.5)	931(3.7)	808(3.3)	1,028(4.2)	865(3.4)	839(3.3)	837(3.3)	
15~29세	408(9.5)	332(7.7)	323(7.6)	376(8.5)	297(7.1)	372(8.8)	332(7.9)	320(7.6)	332(7.6)	
30~39세	234(3.9)	217(3.6)	213(3.5)	208(3.4)	194(3.2)	237(4.0)	211(3.5)	205(3.4)	184(3.1)	
40~49세	192(2.9)	154(2.3)	165(2.5)	159(2.4)	151(2.2)	167(2.5)	145(2.1)	142(2.1)	138(2.0)	
50~59세	150(3.2)	105(2.1)	113(2.3)	122(2.4)	114(2.3)	133(2.7)	107(2.0)	103(1.9)	107(2.0)	
60세 이상	146(5.8)	61(2.1)	59(2.0)	67(2.2)	53(1.9)	119(4.5)	70(2.3)	71(2.2)	77(2.5)	
중졸 이하	241(5.1)	131(2.5)	131(2.5)	151(2.8)	112(2.2)	195(4.1)	112(2.1)	103(2.0)	118(2.3)	
고졸	493(5.0)	386(3.8)	408(4.0)	443(4.3)	392(3.9)	465(4.6)	408(4.0)	424(4.2)	423(4.1)	
대졸 이상	396(4.2)	352(3.6)	334(3.5)	338(3.5)	304(3.1)	369(3.8)	345(3.4)	312(3.1)	296(2.9)	
취업무경험실업자	57	46	35	57	38	52	45	47	64	
취업유경험실업자	1,072	822	838	874	770	977	820	792	773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1. 8), 『2011년 7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1년 5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2.6% 상승

○ 2011년 5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600천 원으로 전년동월(2,535천 원)대비 2.6%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하였으나 초과급여 증가율은 7.5%, 특별급여 증가율은 23.8% 감소하여 2011년 5월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인 2,757천 원을 기록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15.2% 상승한 1,207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상승에 힘입어 전체근로자 임금총액은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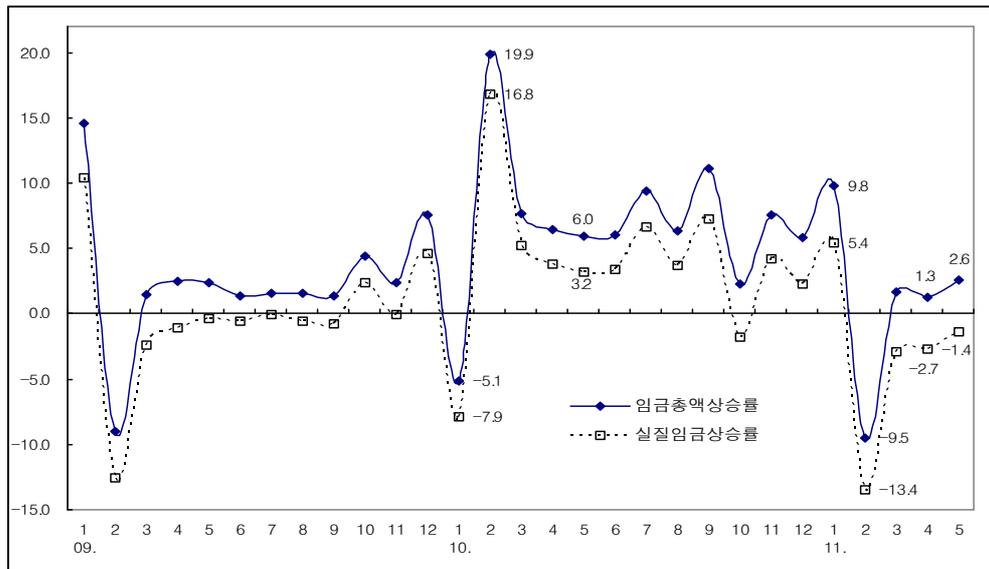
(단위 : 천 원/월, 2005=100.0, %)

		2008	2009	2010	2011						
					1/4분기	2/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3월	4월	5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569 (-)	2,636 (2.6)	2,816 (6.8)	2,825 (7.0)	2,684 (6.5)	2,535 (6.0)	2,830 (0.2)	2,732 (1.6)	2,719 (1.3)	2,600 (2.6)
상용 근로자	임금 총액	2,802 (-)	2,863 (2.2)	3,047 (6.4)	3,030 (7.0)	2,921 (6.5)	2,758 (6.3)	2,992 (-1.3)	2,899 (0.6)	2,874 (-1.6)	2,757 (-0.0)
	정액 급여	2,057 (-)	2,139 (4.0)	2,234 (4.5)	2,210 (4.1)	2,215 (4.7)	2,221 (4.6)	2,308 (4.4)	2,323 (4.8)	2,309 (4.2)	2,314 (4.2)
	초과 급여	179 (-)	175 (-2.2)	196 (12.2)	183 (17.4)	190 (14.4)	202 (12.4)	168 (-8.4)	176 (-8.0)	179 (-6.2)	187 (-7.5)
	특별 급여	566 (-)	550 (-2.8)	617 (12.3)	637 (15.1)	515 (12.2)	335 (14.4)	516 (-18.9)	399 (-15.4)	386 (-25.0)	255 (-23.8)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052 (-)	1,073 (1.9)	1,056 (-1.6)	1,052 (-2.4)	1,084 (3.3)	1,047 (-3.4)	1,149 (9.2)	1,142 (12.8)	1,177 (8.6)	1,207 (15.2)
실질임금 (전체 근로자)		2,342 (-)	2,337 (-0.2)	2,426 (3.8)	2,465 (4.2)	2,322 (3.8)	2,191 (3.2)	2,364 (-4.1)	2,269 (-2.9)	2,258 (-2.7)	2,160 (-1.4)
소비자물가지수		109.7 (4.7)	112.8 (2.8)	116.1 (2.9)	114.6 (2.7)	115.6 (2.6)	115.7 (2.7)	119.7 (4.5)	120.4 (4.7)	120.4 (4.2)	120.4 (4.1)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실질임금은 1.4% 감소함.
 - 소비자물가상승률(기준연도=2005년)을 감안한 실질임금 총액은 2,160천 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함.
 - 명목임금은 전년동월에 비해 증가했으나, 물가가 반영된 실질임금은 2011년 2월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그림 7 참조).

◆ 광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 광업의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은 반면, 사업서비스업의 임금감소가 가장 큼.
 - 2011년 5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광업(20.2%), 건설업(18.6%), 숙박 및 음식점업(15.2%),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1.4%) 순으로 나타남.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월, %)

	2010		2011	
		5월	4월	5월
전 산업	2,816 (6.8)	2,535 (6.0)	2,719 (1.3)	2,600 (2.6)
광업	3,000 (7.3)	2,637 (-3.1)	2,878 (3.2)	3,170 (20.2)
제조업	2,985 (9.1)	2,562 (8.5)	2,852 (-0.6)	2,661 (3.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 (7.0)	4,039 (1.8)	4,224 (1.0)	4,152 (2.8)
하수·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5.2)	2,275 (6.4)	2,332 (2.7)	2,369 (4.1)
건설업	1,944 (7.9)	1,765 (3.7)	2,135 (16.5)	2,094 (18.6)
도매 및 소매업	2,769 (7.1)	2,464 (6.2)	2,755 (6.0)	2,693 (9.3)
운수업	2,381 (5.4)	2,144 (7.0)	2,370 (0.5)	2,236 (4.3)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5.0)	1,394 (3.9)	1,598 (12.2)	1,605 (15.2)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4.7)	3,289 (8.9)	3,487 (10.4)	3,664 (11.4)
금융 및 보험업	4,680 (4.7)	4,468 (6.1)	4,584 (2.2)	4,469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4.3)	1,799 (-0.2)	2,002 (11.1)	1,903 (5.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6.9)	3,688 (8.9)	3,735 (-0.1)	3,478 (-5.7)
사업서비스업	1,848 (8.2)	1,724 (7.6)	1,640 (-8.3)	1,618 (-6.2)
교육서비스업	3,157 (1.4)	2,927 (-4.5)	2,837 (-8.5)	2,798 (-4.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2.4)	2,456 (1.6)	2,431 (-3.4)	2,338 (-4.8)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07 (0.9)	1,956 (3.6)	1,930 (-2.7)	1,919 (-1.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4.0)	1,893 (3.7)	2,129 (5.7)	2,054 (8.5)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 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반면 2011년 5월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감소한 산업은 사업서비스업(-6.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8%), 교육서비스업(-4.4%) 등으로 이는 특별급여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금융 및 보험업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액급여가 낮은 것에 기인함.

◆ 5~299인 규모에서 명목임금 상승

- 2011년 5월 규모별 명목임금상승률은 5~299인 규모에서 상승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명목임금상승률은 2011년 5월 기준 2,53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3,57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함.
 -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감소했다가 2010년 증가한 특별급여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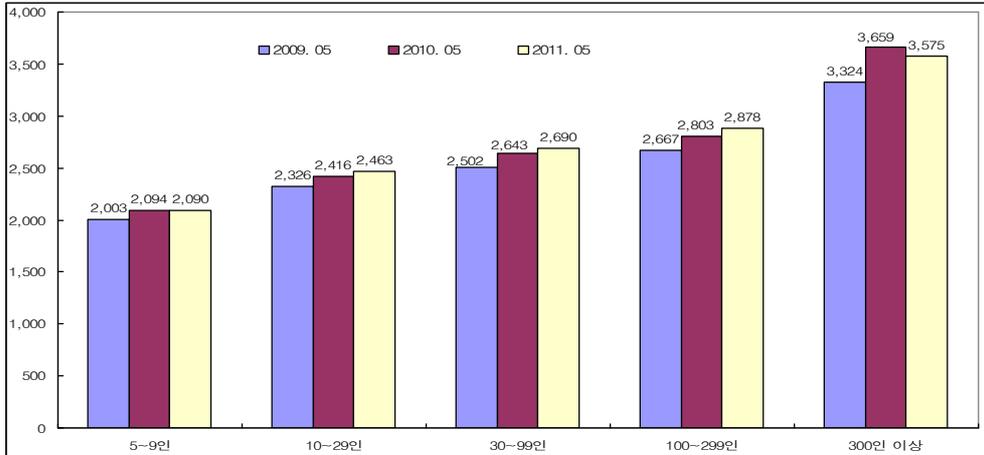
(단위: 천 원/월, %)

		2010		2011	
			5월	4월	5월
전규모 (5인 이상)	전 체	3,047 (6.4)	2,758 (6.3)	2,874 (-1.6)	2,757 (-0.0)
	정액급여	2,234 (4.5)	2,221 (4.6)	2,309 (4.2)	2,314 (4.2)
	초과급여	196 (12.2)	202 (12.4)	179 (-6.2)	187 (-7.5)
	특별급여	617 (12.3)	335 (14.4)	386 (-25.0)	255 (-23.8)
5~299인	전 체	2,699 (5.5)	2,505 (4.9)	2,574 (-0.6)	2,534 (1.2)
	정액급여	2,082 (4.3)	2,072 (4.8)	2,180 (5.5)	2,187 (5.5)
	초과급여	176 (13.6)	183 (14.5)	149 (-13.3)	157 (-14.2)
	특별급여	441 (8.4)	250 (0.0)	245 (-30.3)	191 (-23.6)
300인 이상	전 체	4,291 (9.1)	3,659 (10.1)	4,009 (-2.4)	3,575 (-2.3)
	정액급여	2,779 (5.2)	2,748 (4.6)	2,795 (1.7)	2,784 (1.3)
	초과급여	268 (9.6)	272 (7.9)	292 (12.9)	299 (10.0)
	특별급여	1,245 (18.7)	639 (43.6)	922 (-16.2)	492 (-22.9)

주: 1)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8]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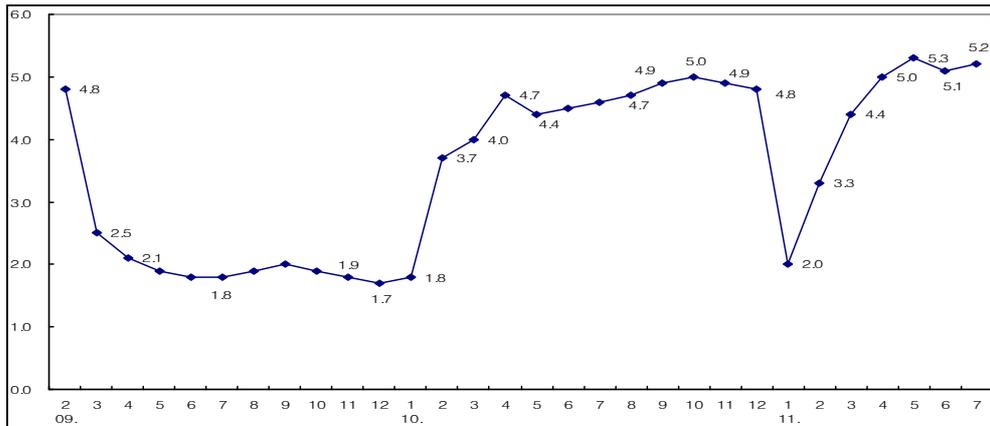
◆ 2011년 7월 협약임금인상률 5.2%

○ 2011년 7월 협약임금인상률은 5.2%를 기록함.

- 2011년 7월 말 협약임금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5.2%로 2010년 같은 기간의 인상률(4.6%)에 비해 0.6%p 상승하였음.

[그림 9] 협약임금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일반적으로 승진에 따른 인상분,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임금총액 상승률은 5인 이상 상용직 기준임.
 3) 월별 협약임금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1년 5월 근로시간, 전년동월대비 6시간 증가

○ 2011년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함.

– 2011년 5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3.1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67.1시간)에 비해 6시간(3.6%)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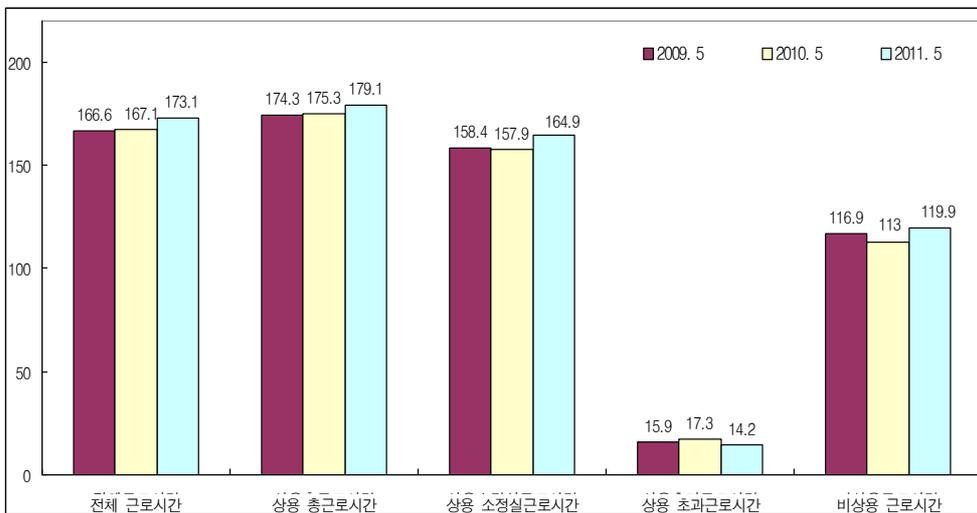
※ 2011년 5월은 2010년 5월에 비해 월력상 근로일이 1일 더 많음.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9.1시간으로 전년동월(175.3시간)대비 3.8시간, 소정실근로시간은 164.9시간으로 전년동월(157.9시간)대비 7시간 증가한 반면, 초과근로시간은 14.2시간으로 전년동월(17.3시간)대비 3.1시간 감소함(그림 9 참조).

– 한편 임시·일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19.9시간으로 전년동월(113.0시간)대비 6.9시간(6.1%) 증가함.

[그림 10]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 증가

○ 운수업, 사업서비스업은 감소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함.

– 2011년 5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190.9시간, 19.8%), 건설업(151.3시간, 7.5%), 제조업(190.0시간, 3.2%)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표 9〉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월, %)

	2008	2009	2010	2011		
				5월	1/4분기	2/4분기 5월
전 산업	176.7 (-)	176.1 (-0.3)	176.7 (0.3)	167.1 (0.3)	172.1 (-0.5)	173.1 (3.6)
광업	180.3 (-)	187.6 (4.0)	188.1 (0.3)	184.0 (2.6)	180.0 (-1.4)	188.1 (2.2)
제조업	190.1 (-)	188.5 (-0.8)	192.1 (1.9)	184.1 (3.1)	185.8 (-0.5)	190.0 (3.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3.5 (-)	177.9 (2.5)	176.9 (-0.6)	165.4 (0.9)	171.8 (-0.3)	165.3 (-0.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93.5 (-)	194.0 (0.3)	192.9 (-0.6)	183.6 (-1.4)	180.5 (-4.7)	186.2 (1.4)
건설업	155.7 (-)	147.2 (-5.5)	146.1 (-0.7)	140.8 (-2.2)	152.9 (4.9)	151.3 (7.5)
도매 및 소매업	178.7 (-)	179.0 (0.2)	177.2 (-1.0)	168.1 (-0.3)	170.6 (-1.2)	171.1 (1.8)
운수업	170.7 (-)	184.4 (8.0)	184.6 (0.1)	177.8 (0.4)	175.4 (-3.7)	175.6 (-1.2)
숙박 및 음식점업	170.2 (-)	164.3 (-3.5)	163.7 (-0.4)	159.4 (-1.6)	180.4 (12.6)	190.9 (19.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6.2 (-)	166.8 (0.4)	166.2 (-0.4)	154.3 (0.9)	160.1 (-1.6)	159.8 (3.6)
금융 및 보험업	165.9 (-)	166.8 (0.5)	165.3 (-0.9)	151.5 (-1.1)	158.7 (-2.0)	157.5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4.5 (-)	202.0 (-1.2)	200.4 (-0.8)	193.2 (-1.3)	192.2 (-3.1)	192.0 (-0.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7.5 (-)	167.7 (0.1)	166.3 (-0.8)	154.0 (-0.5)	161.5 (-0.7)	160.9 (4.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81.3 (-)	179.0 (-1.3)	180.1 (0.6)	168.6 (-1.1)	166.2 (-5.4)	166.8 (-1.1)
교육서비스업	150.8 (-)	153.7 (1.9)	149.9 (-2.5)	137.4 (-4.8)	149.0 (1.3)	145.5 (5.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1 (-)	176.4 (0.2)	176.5 (0.1)	165.1 (-0.5)	169.5 (-1.4)	167.2 (1.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9.1 (-)	161.6 (1.6)	158.7 (-1.8)	153.6 (-2.4)	152.7 (-1.4)	155.6 (1.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5.8 (-)	175.5 (-0.2)	173.9 (-0.9)	161.3 (-1.5)	171.4 (-0.3)	171.5 (6.3)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편 2011년 5월 운수업(175.6시간, -1.2%), 서업서비스업(166.8시간, -1.1%)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1년 5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92.0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육서비스업(166.8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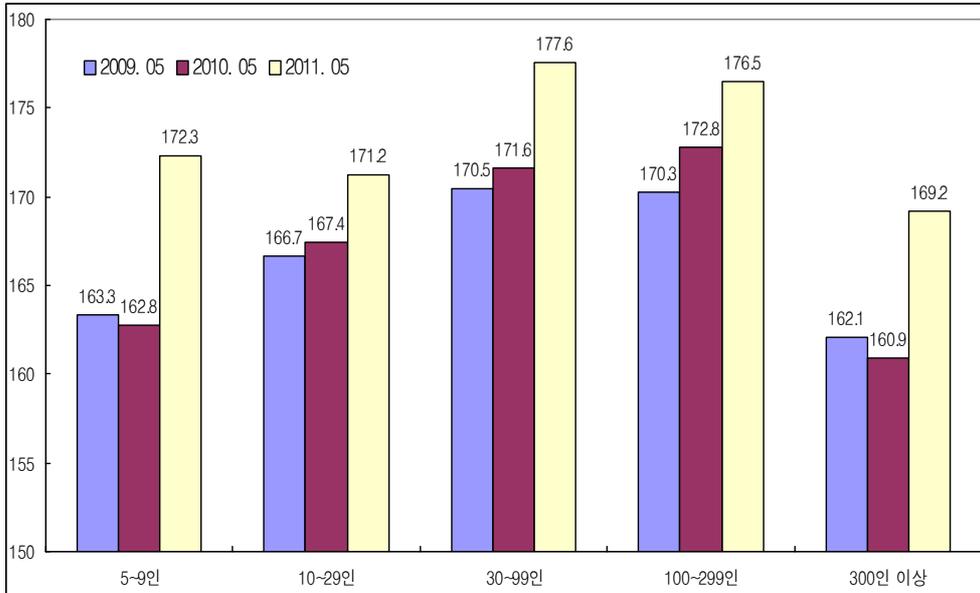
◆ 전체 규모에서 근로시간 증가

○ 2011년 5월 규모별 근로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서 감소함.

- 상용근로자 5~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4.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하였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도 169.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하였음.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월)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가계수지 동향

◆ 2011년 2/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1년 2/4분기 전국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4.8%), 사업소득(2.8%), 이전소득(7.9%)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함(실질로는 0.5% 증가).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은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4.8%), 사업소득(2.8%) 증가에 기인해 4.7% 증가하였으며, 비경상소득은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지출은 가사용품·가사서비스(11.9%), 교통(10.8%), 식료품·비주류음료(8.9%)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4.3%로 증가하였음(실질로는 0.9% 증가).

〈표 10〉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p)

	2010		2011			
	2/4분기		1/4분기		2/4분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3,545.2	7.6	3,857.6	3.5	3,713.5	4.7
경상소득	3,418.8	7.5	3,675.8	4.5	3,577.9	4.7
근로소득	2,279.1	5.7	2,486.2	5.3	2,388.0	4.8
사업소득	812.4	11.2	812.5	2.4	835.5	2.8
재산소득	13.7	-11.3	18.6	13.7	16.1	17.5
이전소득	313.7	12.8	358.5	3.3	338.3	7.9
비경상소득	126.3	9.1	181.8	-14.0	135.6	7.3
소비지출	2,208.6	3.5	2,439.4	8.4	2,303.7	8.9
가처분소득	2,886.1	6.8	3,121.1	2.9	3,012.6	4.4
흑자액	677.4	7.1	681.7	-1.9	708.9	4.6
흑자율	23.5	0.1p	21.8	-1.1p	23.5	0.1p
평균소비성향	76.5	-0.1p	78.2	1.1p	76.5	-0.1p

주: 1)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2)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3)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자료: 통계청(2011.8) 『2011년 2/4분기 가계동향』.

- 비소비지출의 경우,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의 경상조세(8.4%), 사회보험(13.9%), 연금지출(6.2%) 등에서 증가를 주도하여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였음(실질로는 2.0%).
-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하였으며,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가계흑자액은 70만 9천 원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음.
- 2011년 2/4분기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며, 1분위는 이전소득(12.7%)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5분위는 근로소득(5.4%)을 중심으로 증가했음.
 - 소비지출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으며, 2~4분위는 6.0~7.4% 수준의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인 반면, 1분위(2.1%)와 5분위(0.4%)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 가처분소득은 1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0.9% 증가에 그친 반면, 5분위에서는 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11〉 2011년 2/4분기 소득5분위별 소득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 %p)

	I분위		II분위		III분위		IV분위		V분위	
가구원수	257명		318명		345명		358명		367명	
가구주 연령	57.4세		47.8세		45.8세		45.6세		47.1세	
	금액	증감률 (차)								
소득	1,158.4	20	2,449.8	5.0	3,398.4	6.0	4,461.9	4.3	7,091.3	4.7
경상소득	1,108.9	3.0	2,400.1	5.2	3,331.8	6.1	4,371.4	4.3	6,670.3	4.2
근로소득	522.9	1.5	1,425.2	1.6	2,185.7	8.4	2,960.4	3.3	4,840.2	5.4
비경상소득	49.5	-17.1	49.7	-3.7	66.6	3.8	90.5	2.1	421.0	14.6
소비	1,156.5	2.1	1,832.6	7.3	2,281.6	7.4	2,730.4	6.0	3,514.8	0.4
가처분소득	929.5	0.9	2,033.5	4.9	2,805.5	5.6	3,582.0	2.6	5,706.7	5.3
흑자액	-227.0	-7.0	200.8	-13.0	523.9	-1.8	851.6	-7.1	2,191.9	14.3
흑자율	-24.4	-1.4p	9.9	-2.0p	18.7	-1.4p	23.8	-2.5p	38.4	3.0p
평균소비성향	124.4	1.4p	90.1	2.0p	81.3	1.4p	76.2	2.5p	61.6	-3.0p

(반정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1년 1월 1일부터 8월 22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38건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1년 8월 17일 기준)는 324,104일로 집계됨.

〈표 12〉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11. 1. 1~2011. 8. 22.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38	55	△30.9
종 결	26	35	-
진 행	12 (4)	20 (3)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324,104	318,877	1.6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8월 17일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 주요 분규사업장 동향

○ 장기분규 사업장

■ 한진중공업

- 8월 현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인 김진숙씨는 영도조선소 85호 타워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중임. 김진숙씨 외 4명도 합류하여 함께 농성중. 8월 19일 까지 해고자 170명 중 76명이 위로금을 수령한 상태임.
- 8월 10일, 금속노조 대국민 호소문 발표 주요 내용은 정리해고 철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임단협 재개,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영도조선소에 대한 장기적 발전방향을 노사가 교섭을 통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 등임.
- 8월 21일, 사측은 영도조선소 근무 조합원 7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에서 김진숙씨가 점거농성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73.1%(522명)로 나타났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
- 한편 8월 18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조남호 회장이 출석하여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함.
- 8월 25일, 청문회 이후 노사 상호입장을 논의(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 8월 27~28일, 제4차 희망버스행사 개최

■ SC제일은행

- 노조는 지난 6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여 8월 현재 파업을 지속하고 있음. 7월 11일부터 전국 소매금융지점 366개 점포 중 43개 점포가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
- 8월 18일에는 1명이 업무복귀함(8월 18일까지 업무복귀자는 총 135명으로 나타남).
- 한편 18일에는 서울고용청장 주제로 노사가 대표간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진전 없이 끝남. 이미 7월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노사간 수정안이 제시된 바 있으며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¹⁾
- 8월 22일경 조합원들은 다시 속초(현대수콘도)로 복귀, 집행부는 25일에 상경 집회, 8월 29일에 업무복귀, 8월 31일 파업 등에 관한 일정을 발표함.

1) 6월 30일 노조 수정안(정규직 3%, 비정규직 6% 인상, 합의시 특별보조금 200% 등)에 대해 7월 20일 사측 수정안에서는 성과급제 TFT 구성 논의, 2010년 임단협 안건 가운데 우선 임금인상률(정규직 2%, 비정규직 4% 인상)에 합의, 상설 명예퇴직제도와 후선발령제도는 시중은행들이 현재 운용중인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시함.

- 8월 25일, 주요지역 거리선전전 실시 등 집회를 개최한 후 속초로 복귀, 8월 26일에는 속초에서 집회 후 지역별로 귀가조치한 후 29일에 업무복귀, 8월 31일 파업 예정(9월 1일 다시 업무복귀가 예정됨).

■ 유성기업

- 8월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직장폐쇄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3차 심문을 실시함. 노사는 8월 31일까지 노조원 전원 복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 조정사항에 합의하였음.2)
- 8월 17일, 유성기업(주)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편제 등을 논의(영동지부 설치, 지부장 선출 결의)
- 8월 18일, 노조는 미복귀 조합원 209명(240명 중)의 서약서를 사측에 제출함. 주요 서약 내용은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존 복귀자 및 관리직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등임.
- 8월 19일에는 공장정문에서 「법원 합의 조정결정 수용에 따른 유성기업지회 입장 표명 기자회견」 개최함. 8월 22일에는 조합원 43명(아산 15, 영동 27, 남동 1)이 업무복귀할 예정. 복귀대상인원은 총 240명임.
- 유성기업에는 현재 금속노조 유성기업지부와 유성기업노조가 복수로 존재함. 7월 22일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유성기업 노조에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하였음. 현재 185명 정도의 조합원이 가입된 상태라고 알려짐(전체 조합원의 30%). 이 날 사측은 유성기업(주)노조에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공문을 통보하고, 8월 4일 교섭참여노조를 확정함(금속노조, 유성기업노조). 8월 16일에는 유성기업노조가 사측에 개별교섭 동의를 요구하였고, 사측은 이에 동의한 상황임.
- 8월 22일, 조합원 42명(아산 14, 영동 27, 남동 1)이 출근하였으나, 아산공장 14명 중 12명만 정상근무, 노조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2명은 배치전환을 거부함. 사측은 이들에 대해 업무지시 위반 경고 및 귀가명령서 전달함.
- 8월 25일 현재, 조합원 174명 업무복귀

■ 현대자동차

- 8월 9일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을 결의함. 8월 10일 중앙노

2) 법원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채권자는 8.18까지 채권자 200명 이상의 서약서를 채무자에게 제출 <1항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②8.19부터 채권자 전원 노조사무실, 식당출입 허용(동시 출입 가능 인원 아산·영동 각 30명 한도), ③8.31까지 채권자 전원 복귀, 최초 복귀시점은 8.22 이전까지, 복귀자 선별은 채무자가 함, ④최초 복귀시점 기준급여 보전, ⑤채무자는 2항 위반시 위약금 1일 500만 원 지급 ⑥채무자는 8.31까지 전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 1일 500만 원(최대 1일 1천만 원) 지급 등임.

- 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8월 22일 조정기간이 만료된 상태임.
- 8월 16일 노조는 2011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보고대회를 개최함. 이 경훈 지부장은 사측이 8월 20일까지 사측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조합원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도끼로 왼손 새끼손가락 일부를 절단하여 봉합수술 후 입원 중임.
 -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은 8월 24일로 확정함.
 - 8월 19일에는 노사가 제19차 교섭을 개최하였고, 사측은 타임오프·임금·경영성과급 등 사측안을 일괄적으로 제시함.³⁾ 사측안은 기본급 9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기본급 기준 5.23%, 통상급 기준 4.31%), 경영성과급 300%+400만 원 지급(100%+400만 원은 협약체결시, 200%는 '11.12월 말 지급),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300만 원 지급('11.12월 말 지급), 2011년 단체교섭 타결기념: 무분규시 주식지급(주식수 거론 없음), 수당 인상: 근속수당 근속별 5천 원 인상, 통합수당(제도개선 비용) 1만 8천 원 인상, 타임오프 관련: 근로시간면제자 26명+무급전임자 84명 등 임.⁴⁾
 - 노조는 임금인상 등 쟁취를 위해 8월 11일부터 출근선전전과 철야농성을 계속중에 있으며 8월 20일, 21일에는 주말특근 거부함.
 - 8월 22일, 노사는 20차 교섭을 실시함. 사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 다음 날 다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음. 노조는 사측 수정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추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파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 사측의 수정안은 기본급 90,000원 → 91,000원(기본급 기준 5.29%, 통상급 기준 4.35%), 무분규시 주식 30주 지급(480여만 원 상당) 등임.
 - 8월 26일, 임단협 등 잠정합의안 및 추가조합비 지출 승인찬반투표가 가결됨(54.19%), 29일 노사조인식 예정

3) 노조 임단협 요구안은 기본급 150,611원 인상, 상여금 현 750% → 800%(50% 인상), 성과급 '10년 순이익의 30%(15,800억 원)를 조합원 및 사내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 정년연장(58세→60세<단, 정년 후 촉탁 1년 연장가능>),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현행 대리급까지 → 차장급까지),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채용 우대 등임.

4) 타임오프 관련 사측의 수정 제시안: ① 근로시간면제자 26명(연 48,000시간 한도)·상시전임 79명(무급)·기간전임 25명(무급)으로 총 130명, ②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및 기타급여 일체는 동일 근속, 평균급 이상으로 지급, ③ 무급전임자 처우: 전임기간 근속연수 포함, 전임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 금지, 일시급(주식), 선물비, 4대보험은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 급여 외 제반 복지사항(진료비, 학자금, 차량구입시 할인, 장기근속자 처우 등)은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 등이며, 추가제시안으로 상시전임자를 5명 추가하기로 함.

■ 전북고속

- 공공운수노조 전북고속(시외버스) 분회는 2010년 12월 8일부터 파업 계속중임. 현재는 20명의 조합원이 참가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8월 12일 전북지역자동차노조(교섭대표노조)와 전북고속, 2차 임금교섭을 진행함. 자동차노조측은 현행 단협(유효기간: '10. 7. 1~'12. 6. 30)을 갱신요구한 상태임.
- 문제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고속 분회와 한국노총 자동차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측이 지난 7월 1일 전북지역자동차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7월 29일 전북지역자동차노조가 전북고속에 과반수노조로 통지함에 따라 사측이 과반수노조에 대한 공고문 게시함. 이에 전북고속 분회의 교섭 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8월 19일에는 사측이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에 교섭대표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단체교섭 불참을 통보하였음.⁵⁾ 20일에는 노사가 회동을 가짐. 사측은 교섭대표노조 확정 이후 쟁의행위는 정당성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주요 분규사업장 등

■ 언론노조

- 8월 19일, 노조는 70개 노조 사업장이 참여한 언론노조 총파업 투표에서 쟁의가결 결정을 발표함(투표율 75.4%, 찬성 84.9%).
- 언론노조는 지난 8월 8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함. 전체 112개 사업장(2011. 7월 기준 12개월 이상 조합비 미납 사업장 제외) 중 70개 사업장에서 투표를 진행하였음.
- 언론노조의 투쟁일정은 8월 22일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실시하고,⁶⁾ 23일 출정식을 개최. 25일에는 집중 상경투쟁을, 29일에는 총파업지지 기자회견을 개최. 언론노조는 총파업 돌입에 맞춰 한진중공업 사태 등 민생현안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재나 조중동 방송 광고직거래 금지를 위한 미디어랩법 취재와 관련한 최소 인력을 제외한 모든 조합원은 국회에 집결하는 지침을 내릴 예정

5) 8월 18일, 전북지역자동차노조(교섭대표노조)와 전북고속은 3차 임금교섭 이후 임금인상에 합의함(월 총액 105,000원<4.8%> 인상 등).

6) 이 날 투쟁지침의 내용은 8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언론노조는 총파업에 돌입, 한진중공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재와 현안인 미디어랩에 대한 취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은 제외하고 모든 조합원은 총파업에 참여, 8월 23일 오후 2시 총파업 출정식을 위해 여의도로 집결 등임.

■ 금속노조

- 8월 19일 금속노조는 한진중공업 관련 국회청문회에 대하여 입장을 발표함. 금속노조는 한진중공업 청문회에 대해 실망이 크다고 하면서, 사측의 정리해고는 또 한번 부당함이 증명되었고, 김진숙 지도위원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확인하였다고 함. 또한 앞으로의 노사협상은 94명의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키고, 영도조선소 정상화와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방안에 대해서 순환휴직, 교육훈련, 파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는 협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 금속노조는 3년 뒤 복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넘어선 정리해고 철회라는 사회적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엄중하게 촉구
- 한편 8월 18일 지부 집단교섭을 실시하면서 인천지부가 잠정합의에 이름. 8월 현재까지 14개 지역지부 중 11개 지부가 잠정합의에 이른 상황임. 1개 지부(대구)는 교섭중이고 2개 지부(구미·광주전남)는 미교섭 상태임. 대구지부의 경우, 18일 교섭이 진전이 없자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8월 24일 부분파업을 계획
- 8월 24일까지 금속노조 본조의 임원선거 입후보 등록 마감 예정임. 금속노조 선거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임. 지부 임원은 8월 31일에 공고 후 본조와 동일하게 투표
-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7월 13일)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산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①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통상시급은 4,620원과 법정최저임금+90원 중 높은 금액 적용)과 월 통상임금(높은 통상시급 X 227시간) 중 높은 금액 적용
② 복수노조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 준수
③ 발암물질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2년마다 발암물질 조사, 노사 공동으로 조사관련 기관과 방법의 결정, 발암물질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발암물질 관련 합의에 대해 사내하청노동자 동일 적용 노력 등 합의
④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을 위하여 '12.9월까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와 실노동시간 단축소위원회를 운영

- 르노삼성차 근로자 100여명이 지난 8월 21일 금속노조에 가입함. 르노삼성차에는 영업직 20여명으로 구성된 기존 노조가 있음. 현재는 임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 한편 사원대표위원회가 사실상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구로 활동하고 있었음. 이번 금속노조에 가입한 노조의 조합원은 3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7) 임금은 최저 35,000원을 인상하고, 사업장별 인상액은 보충교섭에서 다름. 인천지역 실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사업 추진 및 이를 위한 사회공헌적 기금을 마련하기로 함. 종업원수를 감안하여 사용자가 출연(50인 이하 연 150만 원~500인 이상 연 2,000만 원을 비영리법인 단체가 인가된 시점부터 12개월로 분할 출연)

■ 대림교통

- 대림교통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전북 전주 소재의 기업임. 노조는 전북택시일반노조(상급단체 없음)와 지난 7월 1일자로 대림교통노조(상급단체 없음)가 복수로 설립된 상태임.
- 8월 20일 전북택시일반노조는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조정, 교섭대표노조와의 교섭을 주장하며 6월 30일부터 파업중임(10명 참가). 단체교섭은 5월 이후 중단
- 제 1노조인 전북택시일반노조는 제2노조인 대림교통노조가 설립 당시에는 개별교섭을 주장하다 8월 12일, 법원이 제1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인용 결정함.8)이에 제1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대표노조가 전북택시일반노조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노조별 개별교섭을 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사측은 전주지법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항고함.

■ MBC

- MBC는 2011년 1월 14일, 단체협약 해지통보된 이후 단체협약이 새로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임. MBC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였으나 2월 12일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음.
- 8월 18일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조합원 1,977명 중 투표한 조합원이 1,728명, 찬성한 1,341명으로 67.87%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결의가 가결되었음.
- 이는 작년 김재철 사장 퇴진 투쟁을 위한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해 파업을 가결하였다는 점에서 노사관계가 여전히 갈등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 줌. 더구나 지역 MBC 강제 통폐합, 라디오 방송 진행자 교체, <PD수첩> 무력화 시도, 보도 연성화,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 등에 대한 강력한 불만들이 파업에 대한 동력을 실어주었을 것으로 예상함.
- 이번 파업은 작년과 달리 방송 필수유지 인력까지 파업에 참여시킬 가능성이 높음. 노조는 8월 대의원대회에서 방송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강한 수준의 파업을 예고한 바 있음. 그러나 총파업의 향배는 취임 이후 노사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김재철 사장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임. 따라서 노조도 파업찬반 투표와는 별개로 사측과 단체교섭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임.
- 한편 지난 7월 29일 김재철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한 바

8) 제1조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에서 사측은 2011년 7월 당시 교섭중이었던 제1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이므로 1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30만 원 지급하여야 함.

있으나 임시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의 재신임이 결정되었고 MBC 주주총회에서 도 사장 재신임을 의결한 바 있음. 노조는 8월 2일부터 사장출근 저지투쟁을 지속하고 있음.

- 8월 22일에는 노사 면담에서 노조측이 성실교섭 요구한데 대해 사측은 김재철 사장은 출근저지투쟁 중단을 전제로 ① 금주 내 노사면담 개최, ② 9월 둘째 주 사장이 참석하는 단체협약 본교섭 개최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짐.
- 8월 26일, 노사면담을 실시함. 이날 면담에서는 단협상 공정방송규정과 인사책임 문제, 지역사 합병 등에 대한 노사의 입장을 주고 받음.

■ KEC

- KEC에는 기존 금속노조 KEC지회와 지난 7월 1일 설립된 KEC 노동조합 등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상태임.
- 지난 8월 3일, 금속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6월 20일 제기)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측은 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임. 법원은 사측이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을 함.)
- 8월 16일, 금속노조 KEC지회는 사측에 제18차 본교섭을 요구하였고, 사측은 노조에 교섭일정을 변경하여 통한 상황임. 한편 17일에는 사측이 징계해고자 중 6월 28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양정과다) 판정을 받은 13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속개하여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함. 현재까지 징계해고자는 총 39명임.
- 사측은 8월 22일에 제1, 2노조에 단체교섭 사측 제시안 통보하였고, 8월 26일 각각 본교섭 진행할 예정임. 이날 제시한 사측안은 ① 회사 경영난에 따른 자구노력 동참 제안(인건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 연 50억 원 절감, 희망퇴직, 순환무급휴직 및 연월차 사용으로 연 50억 원 절감), ②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 개정, ③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도출, ④ 상기 사항 합의시 3년간 고용안정 보장 등으로 알려짐.

9) 결정이유를 살펴보면,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는 2011. 7. 1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1. 7. 1 당시 사측과 교섭중이었던 금속노조는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정함. 이 결정문에는 “KEC지회는 적어도 파업과 직장폐쇄가 철회된 2011. 6월경 이후에는 노조전임자 문제 또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지회가 종전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요구대상으로 삼았거나 불법행위를 수반한 쟁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단체교섭 의무를 영원히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실시함.

■ 금융노조

- 8월 16일 노사는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노사대표 교섭을 실시함. 그러나 교섭이 진전 없이 마무리됨. 노사간 교섭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양측의 주장이 지나치게 팽팽하기 때문임.
- 지난 3월 노조는 노조안을 사측에 제시하였음에도 임금 이외의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사측이 내비치면서도 금융업종의 특성상 노사합의로만 임금결정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노조에 전달
- 이제 노조는 사측에 8월 23일 대표교섭을 요구함. 노조의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은 ‘총액임금 8.0%+ α 인상’으로 제시하였으나 사측은 이에 대한 사측안 미제시.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과 동시에 산별중앙교섭 안건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아울러 전달함. 특히 2009년 각 지부별로 노사합의한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산별중앙교섭에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임.
- 그 외에도 근무시간 정상화, 성과연봉제(개인별 성과차등제) 도입 금지, 전임자 처우 등 노사자율 결정, 성과향상추진본부 등 구조조정 수단부서 운영금지 등에 대한 노조안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임.

■ 온라인

- 전북 김제 소재의 경비·청소·시설용역 업체임. 현재 두 개의 노조가 병존하고 있는 상태임. 제1노조는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이며(2011년 6월 16일 설립, 조합원 67명), 제2노조는 온라인 노동조합(상급단체 미가입, 2011년 7월 6일 설립, 조합원 209명)임.
- 제1노조는 2011년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임금교섭 후 6월 30일 전북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림. 전북지노위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노사간 현격한 주장차이를 이유로 조정중지 결정함.
- 결국 7월 14, 15일에 걸쳐 제1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였고(69.7% 찬성), 8월 19일부터 파업 돌입한 상태임. 노사간 주요쟁점은 시급 5,410원(25.4%인상) 요구임(현행 4,320원). 그러나 사측은 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임.
- 한편 제2노조는 지난 8월 19일 임단협 상견례를 개시하였고, 제2노조는 ① 임금 8% 인상, ② 근무시간 변경(미화원: 6.5시간→8시간, 경비원: 15시간→16시간), ③ 명절상여금 및 하계휴가비 신설, ④ 유통부문 매장식대 인상(4,000원→5,000원) 및 매장교통비 신설, ⑤ 경비원 정년연장(현행 62세), ⑥ 노조사무실 및 비품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음.

- 6월 16일, 제1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6월 22일부터 제1노조와 사측간 교섭을 실시함. 7월 1일 사측은 교섭요구 사실을 직권공고하였고, 같은 달 6일 온라인노조(제2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다음날 설립신고증이 교부됨. 7월 제1노조, 전북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그러나 7월 28일 전북지노위는 신청시기가 아님을 이유로 각하함.
- 7월 8일 제2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해 오며 따라 다음 날 사측은 교섭참여노조에 대한 확정공고를 내었음. 7월 30일 제2노조가 사측에 ‘과반수노조’를 통지하고 사측은 과반수노조에 대해 공고하였음(제2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공고). 이에 제1노조가 전북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한 상황임.
- 8월 25일, 오전 7시부터 파업중단 후 업무복귀.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이 주요한 이유이며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등을 고려하여 향후 투쟁방향을 정하기로 함.

◆ 노동계 동향

○ 양대 노총, 공동기자회견 및 공동투쟁 결의대회 개최

- 8월 17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입직원 임금삭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양대 노총이 공동투쟁을 하겠다고 천명함. 이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음.

○ 한국노총, 정치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한국노총(미래전략위원회)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3주간에 걸쳐 ‘한국노총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노동조합 실태조사와 조합원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번 조사는 산별 및 지역분포, 조합원 규모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집된 노동조합 1,500여곳, 조합원 15,000여명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실시하며, 노조의 조직실태, 조합원의 정치·노동운동·복지·고용·임금에 대한 의식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향후 미래전략위원회 보고서에 반영하여 2012년에 실시되는 총선 및 대선에 정치이슈로 제기할 예정임.

○ 한국노총, 공공·금융부문 초임 삭감에 대한 성명서 발표

- 8월 19일, 한국노총은 “정부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공공·금융부문 초임삭감을 즉각 원상 회복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이날 성명서에서 8월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임금이 무려 1.5배 높다”는 보도자료는 완전 날조이고 모략이라고 반박함.

- 특히 정부는 지난 2009년에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를 명분으로 공공 부문 초임삭감을 법적으로 밀어붙였으나,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과 분노만 증폭시키고 있으며, 결국 보수언론과 정치권에서조차 “원상회복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급조된 자료로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8월 20일, 서울 태평로 접거 거리집회에 4천 5백여명이 참가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함. 이날은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등 노동계와 민주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 의원 및 대표들이 참가하여 진행됨.
- 또한 이날 저녁에는 「숨 쉬라 희망이여」라는 이름의 희망시국대회를 개최하여 집회 종료 후 자진해산함. 다음 날 2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남영역까지 도보행진,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마무리 집회 후 자진해산

○ 이용득 위원장,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간담회

- 8월 18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한나라당 홍준표 당대표를 만나 신입사원 초임삭감 문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문제, 파견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촉구함.
-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존직원 임금인상률 삭감을 통한 신입사원 임금인상 방식은 신입사원의 분노를 넘어 50만 공공부문과 은행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이에 홍준표 당대표 또한 초임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내가 보기에든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와의 얘기고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함.

◆ 경영계 동향

○ 한진중공업의 정상화 방침과 관련한 경영계 입장

- 경총은 8월 10일 성명을 내어 “조남호 회장이 직접 나서 3년 이내 경영정상화를 통한 재고용 노력, 영도조선소 유지 및 지역발전기금 조성, 희망퇴직자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을 약속함에 따라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발표함.
- 오히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운동단체들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불법이라고 매도하면서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리해고는 “노동위원회와 법원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고 주장함. 특히 경총은 “노동계의 불법적인 집회와 국회 청문회를 통한 회사에 대한 압력행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한진중공업의 회생과 지역경제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함.

◆ 정부, 국회 등 동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진중공업 관련 청문회 개최

- 지난 8월 18일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함. 이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노동자들은 동종업계보다 30%나 적은 임금을 감수하고 조 회장은 지분을 약 10%에서 15%로 확대했다”고 꼬집었음.
-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언론에서 다뤄졌던 주식배당 문제도 제기됨.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주주들에게는 2009년부터 3년간 440억 원을 현금 배당하고, 정리해고 발표한 다음 날 주식배당을 시가로 174억 원이나 했다”고 하면서 정리해고가 정당하지 않음을 시사함.
- 여당의원들도 “정리해고 직후 주주배당, 이사 봉급 인상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임을 지적함.
- 이에 조남호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와 해외 선주들이 가격이 낮은 수빅 조선소를 선호하는 점을 들어 반론을 제시하였고, 해고노동자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선복직 무급휴직 등의 방법” 등을 제시하며 “수용할 용의 있냐”고 묻자 조남호 회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음. 다만 조남호 회장은 “회사가 조속히 정상화되면 (3년 이후 재고용 약속을) 앞당길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침.

○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출범

- 8월 19일,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가 출범함. 서포터즈는 ①업종별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를 유도하는 한편, ②사내하도급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하청 근로자 간에 근로조건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이 서포터즈 위원장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주도한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인 박영범 한성대 교수가 맡았음. 그 외 학계, 언론인 및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20명이 서포터즈에 참여하고 있음.

○ 서울고등법원, “KTX여승무원 해고는 무효”

- 2006년에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음.
- 이들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KTX 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중 2006년 5월 해고된 바 있음. 이에 2008년 11월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음.
- 이미 1심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사업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사업부서로서 승무원들과 철도공사는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고등법원 또한 “이 사건 승무원들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으므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함. **KLI**

(김가람,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